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 -
2023년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경영평가 대상기관]
[요약보고서]

2023. 08.



한국산업관계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Research

11. 전북연구원

2023년 경영평가

I. 기관의 이해

1. 기관의 이해

1. 기관현황

<p>설립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전북연구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05.1.28) 																																																																						
<p>설립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립목적: 전라북도 및 전북지역 시·군의 지역발전과 여성정책 등에 관련된 정책현안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 단위의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 																																																																						
<p>연혁</p>	<p>2015.10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전북연구원으로 명칭변경</p> <p>2005.03 전북발전연구원과 전북여성발전연구원 청산, 재단법인 전북발전연구원 설립</p> <p>2005.01 전북발전연구원운영및지원등에관한조례 제정</p> <p>2004.03 전북경제사회발전연구원에서 전북발전연구원으로 명칭 변경</p> <p>2003.02 전북경제사회발전연구원에서 전북경제사회발전연구원으로 명칭 변경</p> <p>2002.01 재단법인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 설립</p> <p>1992.02 재단법인 전북경제사회연구원 설립</p>																																																																						
<p>주요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정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 지역경제, 지역발전, 지역여성에 관한 연구 및 정책 대안의 모색 정부, 전라북도 및 국내·외의 연구기관과 민간단체 용역수탁 연구도서 발간, 국내외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및 정보 교류 협력 및 관리 																																																																						
<p>조직 및 인력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 : 1본부 5부, 1소 2부설기관 인원 : 정원 78명 / 현원 75명 																																																																						
<p>예산규모 (2021)</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2">수입예산액</th>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2">지출예산액</th> </tr> <tr> <th>금액</th> <th>비중</th> <th>금액</th> <th>비중</th> </tr> </thead> <tbody> <tr> <td>총합계</td> <td>9,437,000</td> <td>100.0</td> <td>총합계</td> <td>9,437,000</td> <td>100.0</td> </tr> <tr> <td>① 출자·출연금수익</td> <td>5,130,000</td> <td>54.4</td> <td>① 인건비</td> <td>4,328,911</td> <td>45.9</td> </tr> <tr> <td>② 사업수익</td> <td>4,000,000</td> <td>42.4</td> <td>② 연구비</td> <td>2,896,000</td> <td>30.7</td> </tr> <tr> <td>수탁·협약사업</td> <td>4,000,000</td> <td>42.4</td> <td>고유목적 연구사업</td> <td>1,310,000</td> <td>13.9</td> </tr> <tr> <td>국·도보조사사업</td> <td>0</td> <td>0.0</td> <td>용역 및 위탁사업</td> <td>1,586,000</td> <td>16.8</td> </tr> <tr> <td>③ 기타수익</td> <td>307,000</td> <td>3.3</td> <td>③ 기관운영</td> <td>2,212,089</td> <td>23.4</td> </tr> <tr> <td>621 이자수익</td> <td>50,000</td> <td>0.5</td> <td>① 물건비</td> <td>1,674,972</td> <td>17.7</td> </tr> <tr> <td>628 기타영업외</td> <td>7,000</td> <td>0.1</td> <td>② 경상이전</td> <td>11,500</td> <td>0.1</td> </tr> <tr> <td>199 잉여금</td> <td>250,000</td> <td>2.6</td> <td>③ 자본적지출</td> <td>525,617</td> <td>5.6</td> </tr> <tr> <td></td> <td></td> <td></td> <td>④ 예비비</td> <td>0</td> <td>0.0</td> </tr> </tbody> </table>	구 분	수입예산액		구 분	지출예산액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총합계	9,437,000	100.0	총합계	9,437,000	100.0	① 출자·출연금수익	5,130,000	54.4	① 인건비	4,328,911	45.9	② 사업수익	4,000,000	42.4	② 연구비	2,896,000	30.7	수탁·협약사업	4,000,000	42.4	고유목적 연구사업	1,310,000	13.9	국·도보조사사업	0	0.0	용역 및 위탁사업	1,586,000	16.8	③ 기타수익	307,000	3.3	③ 기관운영	2,212,089	23.4	621 이자수익	50,000	0.5	① 물건비	1,674,972	17.7	628 기타영업외	7,000	0.1	② 경상이전	11,500	0.1	199 잉여금	250,000	2.6	③ 자본적지출	525,617	5.6				④ 예비비	0	0.0
구 분	수입예산액		구 분	지출예산액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총합계	9,437,000	100.0	총합계	9,437,000	100.0																																																																		
① 출자·출연금수익	5,130,000	54.4	① 인건비	4,328,911	45.9																																																																		
② 사업수익	4,000,000	42.4	② 연구비	2,896,000	30.7																																																																		
수탁·협약사업	4,000,000	42.4	고유목적 연구사업	1,310,000	13.9																																																																		
국·도보조사사업	0	0.0	용역 및 위탁사업	1,586,000	16.8																																																																		
③ 기타수익	307,000	3.3	③ 기관운영	2,212,089	23.4																																																																		
621 이자수익	50,000	0.5	① 물건비	1,674,972	17.7																																																																		
628 기타영업외	7,000	0.1	② 경상이전	11,500	0.1																																																																		
199 잉여금	250,000	2.6	③ 자본적지출	525,617	5.6																																																																		
			④ 예비비	0	0.0																																																																		

2. 기관 외부 환경분석

□ 정책환경

- **(공공)** 재정 중심 경제운용, 코로나 대응 등으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나고, 연금개혁도 지연되며 지속가능성 우려 확산
 - 공공기관의 경우 인력이 급증하였으나, 수익성과 부채 악화
 - * 공기업 이자보상배율(%) : ('16) 3.7 ('17) 2.7 ('18) 1.5 ('19) 1.3 ('20) 1.4 ('21) 0.1
- **(노동)** 획일적 규제, 경직적 노사관계, 연공 중심 임금체 등이 청년·여성 등 신규채용 확대 및 노동생산성 향상을 제약
 - * 근속연수 30년 이상/1년 미만 임금(배, '18년) : (韓<20년>) 2.95 (獨) 1.80 (佛) 1.63
 - * 노동시장 경쟁력(IMD, '22년) : 63개국 중 노동시장 경쟁력 42위, 노동생산성 51위
- **(교육)** 높은 대학 진학률에도 불구하고, 대학 자율성 제약 등으로 교육경쟁력이 낮고 산업현장 수요와 교육간 미스매치 심화
 - * 교육경쟁력(IMD, '22년) : 63개국 중 교육경쟁력 29위, 대학교육 경쟁력은 46위
 - * 5대 유망신산업 인력수요 : '20년 24만명 → '30년 38만명까지 증가 예상
- **(전북 정책)** 전북도는 도정 비전 달성과 전북의 경제·민생 회복,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특화발전, 도민의 행복 등을 고려하여 5대 부문을 주요 목표로 설정
 - * 5대 부문 : 경제·산업, 농생명, 문화·체육·관광, 새만금·균형, 도민·교육
- 새롭게 도약하는 전라북도를 만들어내기 위해 혁신도정을 별도의 목표로 설정
 - 도정의 조직, 인사, 재정, 업무 등을 중심으로 과감한 변화를 추진, 성과 전문야로 확산

목표 1	전북 도민경제 부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body> <tr> <td style="width: 50%;">① 기업유치·민생경제 회복</td> <td style="width: 50%;">② 주력산업 대전환</td> </tr> <tr> <td>③ 신산업 성장동력 선점</td> <td>④ 특화금융도시 조성</td> </tr> </tbody> </table>	① 기업유치·민생경제 회복	② 주력산업 대전환	③ 신산업 성장동력 선점	④ 특화금융도시 조성
① 기업유치·민생경제 회복	② 주력산업 대전환				
③ 신산업 성장동력 선점	④ 특화금융도시 조성				
목표 2	농생명 산업 수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body> <tr> <td style="width: 50%;">⑤ 농생명 혁신클러스터 구축</td> <td style="width: 50%;">⑥ 스마트·친환경 농업 허브</td> </tr> <tr> <td>⑦ 활력 넘치는 농산어촌</td> <td>⑧ 농어업 경쟁력 강화</td> </tr> </tbody> </table>	⑤ 농생명 혁신클러스터 구축	⑥ 스마트·친환경 농업 허브	⑦ 활력 넘치는 농산어촌	⑧ 농어업 경쟁력 강화
⑤ 농생명 혁신클러스터 구축	⑥ 스마트·친환경 농업 허브				
⑦ 활력 넘치는 농산어촌	⑧ 농어업 경쟁력 강화				
목표 3	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조성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body> <tr> <td style="width: 50%;">⑨ 휴양·치유 관광 거점화</td> <td style="width: 50%;">⑩ 역사문화 융합 콘텐츠 산업화</td> </tr> <tr> <td>⑪ 문화관광 산업생태계 혁신</td> <td>⑫ 문화·체육 인프라 활성화</td> </tr> </tbody> </table>	⑨ 휴양·치유 관광 거점화	⑩ 역사문화 융합 콘텐츠 산업화	⑪ 문화관광 산업생태계 혁신	⑫ 문화·체육 인프라 활성화
⑨ 휴양·치유 관광 거점화	⑩ 역사문화 융합 콘텐츠 산업화				
⑪ 문화관광 산업생태계 혁신	⑫ 문화·체육 인프라 활성화				
목표 4	새만금 도약·균형발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body> <tr> <td style="width: 50%;">⑬ 신산업관광 복합도시 조성</td> <td style="width: 50%;">⑭ 새만금 추진체계인프라 강화</td> </tr> <tr> <td>⑮ 권역별 자치발전·지역활력</td> <td>⑯ 사통팔달 SOC 조기 완공</td> </tr> </tbody> </table>	⑬ 신산업관광 복합도시 조성	⑭ 새만금 추진체계인프라 강화	⑮ 권역별 자치발전·지역활력	⑯ 사통팔달 SOC 조기 완공
⑬ 신산업관광 복합도시 조성	⑭ 새만금 추진체계인프라 강화				
⑮ 권역별 자치발전·지역활력	⑯ 사통팔달 SOC 조기 완공				
목표 5	도민행복·희망교육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body> <tr> <td style="width: 50%;">⑰ 든든한 복지·성평등 실현</td> <td style="width: 50%;">⑱ 생태환경 자산의 가치 창출</td> </tr> <tr> <td>⑲ 누구나 누리는 건강안전망 구축</td> <td>⑳ 창의·협치 교육 실천</td> </tr> </tbody> </table>	⑰ 든든한 복지·성평등 실현	⑱ 생태환경 자산의 가치 창출	⑲ 누구나 누리는 건강안전망 구축	⑳ 창의·협치 교육 실천
⑰ 든든한 복지·성평등 실현	⑱ 생태환경 자산의 가치 창출				
⑲ 누구나 누리는 건강안전망 구축	⑳ 창의·협치 교육 실천				

□ 경제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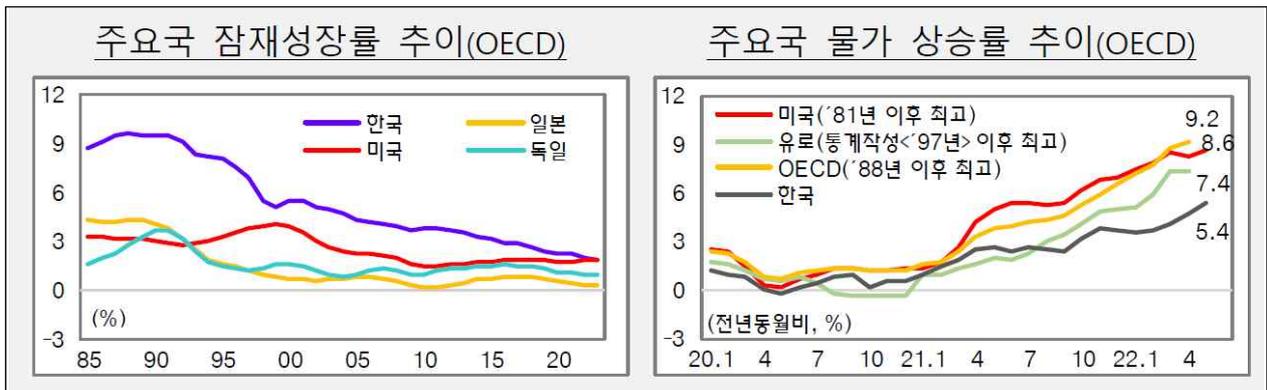
○ **(경제상황)**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고, 당면한 민생 어려움이 겹쳐 위기상황에 직면

◇ 우리 경제 성장 기반은 '90년대 이후 주요국 대비 급속히 하락

* 경제성장률(%) : ('90년대) 7.1 → ('00년대) 4.7 → ('11~'15) 3.1 → ('16~'21) 2.4

◇ 이러한 가운데, 최근 물가 상승세가 확대되고 성장세도 약화

< 現 우리 경제 상황 >



출처: 2022년 관계부처 합동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 **(산업전반)** 산업·기업 역동성이 지속 둔화되며 민간활력이 크게 약화 산업구조 전환이 지체되는 가운데, 최근 과도한 규제·정부개입 등이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

◇ 민간투자가 빠르게 위축

* '21년 OECD 38개국 중 상품시장규제 강도 6위, 정부 기업활동 개입 수준 3위

■ 기업들의 급속한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력도 둔화

* 제조업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 : ('00) 11.2 → ('10)9.8 → ('15) 8.7 → ('19) 7.6

◇ 민간의 성장·고용 둔화에 재정 중심으로 대응하면서 민간활력은 더욱 저하되고 일자리는 단기·재정·고령 일자리 중심으로 증가

○ **(구조변화)** 그간 여러 정책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화가 지속 심화되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 전환되는 등 인구 축소시대 도래

* 생산가능인구 증감(만명) : ('00)28.2 → ('10)30.7 → ('20)△24.9 → ('22)△35.5

* 인구 감소에 대응한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 및 외국인력 확보노력 부족 등으로 노동투입은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상황 : 노동투입 잠재성장 기여도(%) : ('11~'15)0.7 → ('16~'20)0.2 → ('21~'22)△0.1

○ **(전북 지역총생산과 1인당 GRDP 증가)** 전라북도 지역총생산액은 '20년 기준 53.2조 원으로 전국 지역내 총생산액의 2.7%를 유지

* GRDP : ('16년) 47,879십억(전국 비중2.7%) → ('20년) 53,178십억(전국 비중2.7%)

* 1인당 GRDP : ('16년) 2,609만원 → ('20년) 2,967만원



* 전라북도 지역총생산액은 증가에도 불구하고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등 동부권 지역의 비중이 낮고, 전주, 군산, 익산이 집중도가 50% 이상으로 지역간 불균형 존재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GRDP	비율	GRDP	비율	GRDP	비율
전라북도	493,485	100%	505,953	100%	519,975	100%
전주시	145,876	30%	153,010	30%	157,905	30%
군산시	91,507	19%	90,989	18%	92,185	18%
익산시	74,137	15%	76,184	15%	78,812	15%
정읍시	28,812	6%	28,673	6%	30,564	6%
남원시	15,944	3%	16,442	3%	17,635	3%
김제시	27,923	6%	28,044	6%	29,284	6%
완주군	47,578	10%	47,924	9%	48,294	9%
진안군	5,942	1%	6,304	1%	6,263	1%
무주군	6,262	1%	5,733	1%	6,913	1%
장수군	6,032	1%	5,464	1%	5,266	1%
임실군	7,141	1%	7,828	2%	7,450	1%
순창군	7,367	1%	7,204	1%	7,612	1%
고창군	14,813	3%	17,527	3%	16,974	3%
부안군	14,150	3%	14,628	3%	14,818	3%

- **(전북 도민경제 정책방향)** 기업유치 및 민간투자 촉진 등으로 양질 일자리를 창출, 주력·신산업 육성과 금융도시 조성으로 역동적인 전북 산업생태계 구축
 - ◇ (기업유치·민생경제 회복)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전북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지원, 청년 지원, 창업생태계 혁신 등 도민체감형 민생경제 활성화
 - ◇ (주력산업 대전환) 친환경 상용차 최대 생산 거점 전환, 특수선 중심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첨단·친환경 기반 농기계산업 생태계 구축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산업체질 개선
 - ◇ (신산업 성장동력 선점) 수소, 바이오, 재생에너지 등 미래 혁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R&D, 인력양성, 전문기업 육성·지원 등 혁신 생태계 조성으로 신 성장동력 창출
 - ◇ (특화금융도시 조성) 금융 관련 기관을 유치하고 자산운용 중심의 특화된 금융도시 구축

□ **사회문화환경** ※ 출처: 2022년 관계부처 합동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전라북도발전계획(2022|2027)

○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①저출산** 기조 지속에 따라, ②인구감소, ③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가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로 가속화될 전망

○ **(저출산) 합계출산율 지속 하락 → '24년 최저 (0.7명) 전망**

○ 합계출산율은 '21년 0.81명까지 하락 (전세계 198개국 중 최하위)

* 합계출산율(명): ('83) 2.06(인구대체율 하회), ('18) 0.98, ('19) 0.92, ('20) 0.84, ('21) 0.81

■ 코로나19로 인한 혼인감소 등으로 '24년 0.70명까지 하락 전망

○ **(인구감소) '20년 정점 → '70년까지 27% 감소('20년 대비) 전망**

○ 총인구는 '20년 5,184만명 정점, '21년부터 하락 전환

* 총인구(만명): ('16) 5,122 ('17) 5,136 ('18) 5,158 ('19) 5,176 ('20) 5,184 ('21) 5,174

■ '70년 3,766만명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 ('20년 대비 △27.3%)

○ **(고령화) '18년 고령사회 진입→'25년 초고령사회 전망 (7년 소요)**

○ 기대수명 증가와 저출산 가속화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 고령자비중(65세, %) : ('00)7.2 ('18)14.3 ('21)16.6(OECD평균 17.5, '20년) ('25)20.6 ('50)40.1 ('70)46.4

■ 베이비붐 세대('55년~'63년, 710만명)의 고령층 진입에 따라, '25년 초고령사회 진입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

* 고령사회→초고령사회(고령자비중 20% 이상) 도달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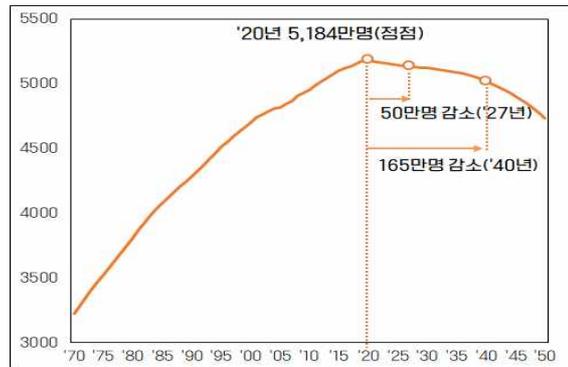
: (佛)29년 (美)15년 (日)11년 (韓)7년

< 합계출산율 추이 >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총인구 추이 >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전북 지속적 인구완화 속 인구 정체기 진입) '21년 기준 전라북도 인구는 총 1,817,186명으로 '17년(1,883,195명) 대비 66,009명 감소)함**

* 기간별 인구감소율은 '08년~'17년 0.06%에서 '17년~'21년 0.03%로 완화되어 인구 정체기에 진입

* 인구변화 : '08년) 1,855,792명 → ('17년) 1,883,195명 → ('21년) 1,817,186명

<표 1-1> 전국 및 전라북도 인구현황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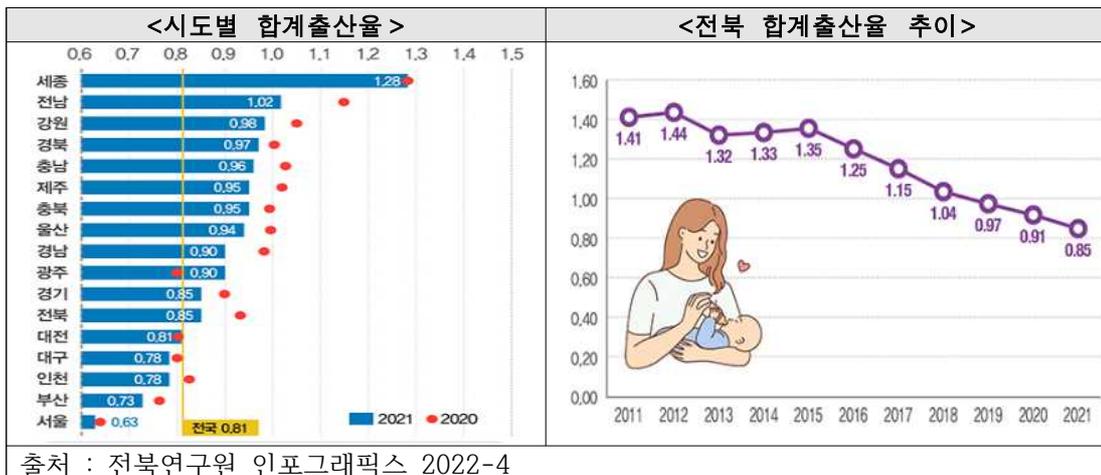
구분	인구수			인구수 변화	인구 변화율		
	2017년	2019년	2021년		'08~'17	'99~'17	'18~'21
전국	52,957,122	53,128,391	52,739,009	-218,113	4.52	9.39	-0.01
서울	10,124,579	10,010,983	9,736,027	-388,552	-3.37	-3.96	-0.03
부산	3,520,306	3,466,563	3,396,109	-124,197	-2.63	-9.08	-0.03
대구	2,501,673	2,468,222	2,412,642	-89,031	-0.70	-1.22	-0.03
인천	3,011,138	3,029,285	3,014,739	3,601	9.50	17.51	0.00
광주	1,485,049	1,480,293	1,462,545	-22,504	2.89	7.90	-0.01
대전	1,519,658	1,493,979	1,469,543	-50,115	1.44	10.17	-0.03
울산	1,185,645	1,168,469	1,138,419	-47,226	4.74	13.75	-0.03
세종	284,225	346,275	376,779	92,554			0.15
경기	13,255,523	13,653,984	13,925,862	670,339	14.01	44.09	0.03
강원	1,567,091	1,560,571	1,555,876	-11,215	2.76	-0.44	0.00
충북	1,631,088	1,640,721	1,633,472	2,384	4.93	6.86	0.00
충남	2,180,925	2,194,384	2,181,835	910	4.87	10.29	-0.01
전북	1,883,195	1,851,991	1,817,186	-66,009	-0.06	-7.71	-0.03
전남	1,927,645	1,903,383	1,865,459	-62,186	-1.18	-12.00	-0.03
경북	2,745,070	2,723,955	2,677,709	-67,361	0.66	-4.16	-0.02
경남	3,455,540	3,438,676	3,377,331	-78,209	4.81	9.75	-0.02
제주	678,772	696,657	697,476	18,704	17.21	21.97	0.01

자료 : 국가통계 포털

◇ 출산율 저하와 고령인구 증가 : 전북은 전국적 출산율 감소에 따라 지속적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 출산율은 0.85명으로 전국적 하위권에 해당

* 출산율 ('11년) 1.4명 → ('15년) 1.5명 → ('21년) 0.8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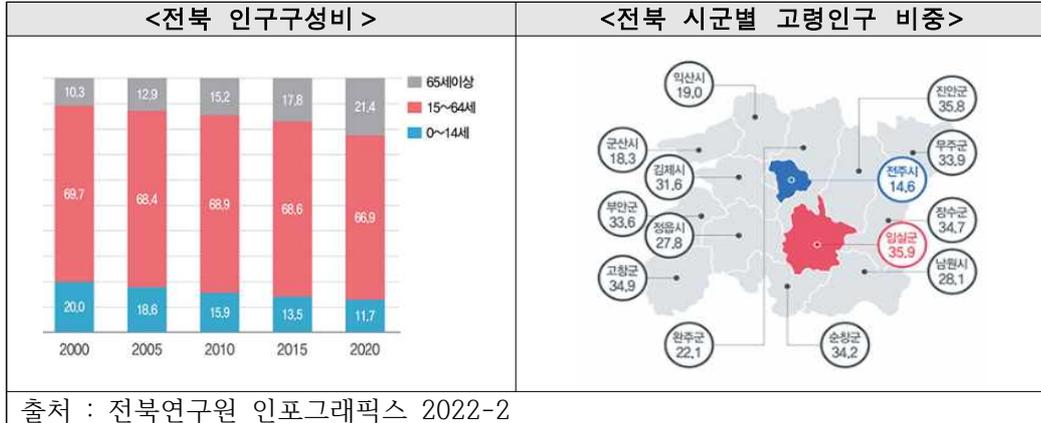
<그림 1-1> 전라북도 합계출산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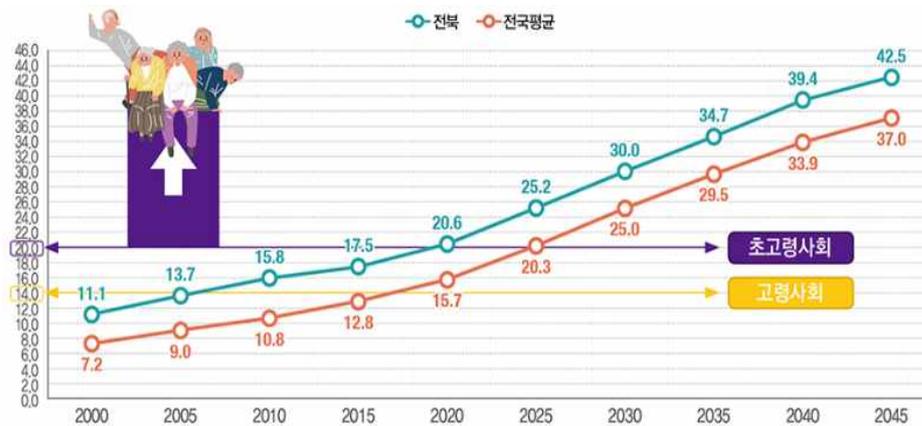
◇ 전북은 65세 노인인구는 비중은 2000년 7.0%에서 2020년 16.4%로 약 9.4% 가량 증가하면서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 노인인구 비중 20%가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 전망

* 고령인구 비중은 임실군이 35.9%로 가장 높고, 전주시가 14.6%로 가장 낮음

<그림 1-2> 전라북도 합계출산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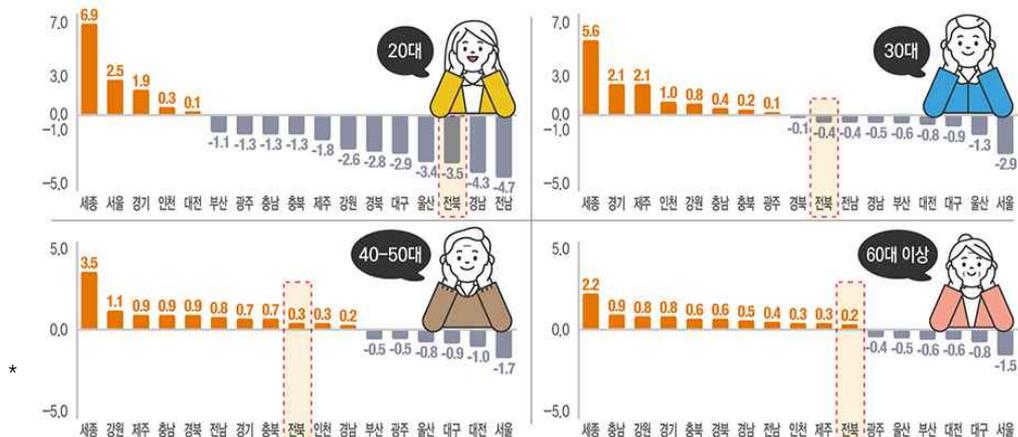
<그림 1-3> 전라북도 고령인구 비중 추계



◇ 20, 30대 인구의 유출, 반면 40대 이상 인구 유입 : 전북의 연령층에 인구 순유입 현황을 살펴보면 20대와 30대는 타 시도로 순유출 되는 반면, 40대 이상부터는 순유입 되고 있음

* 전북지역 전입 사유 : 자연환경, 가족 순 / 전북지역 전출 사유 : 직업, 교육, 주거 순

<그림 1-4> 전라북도 연령별 순이동률(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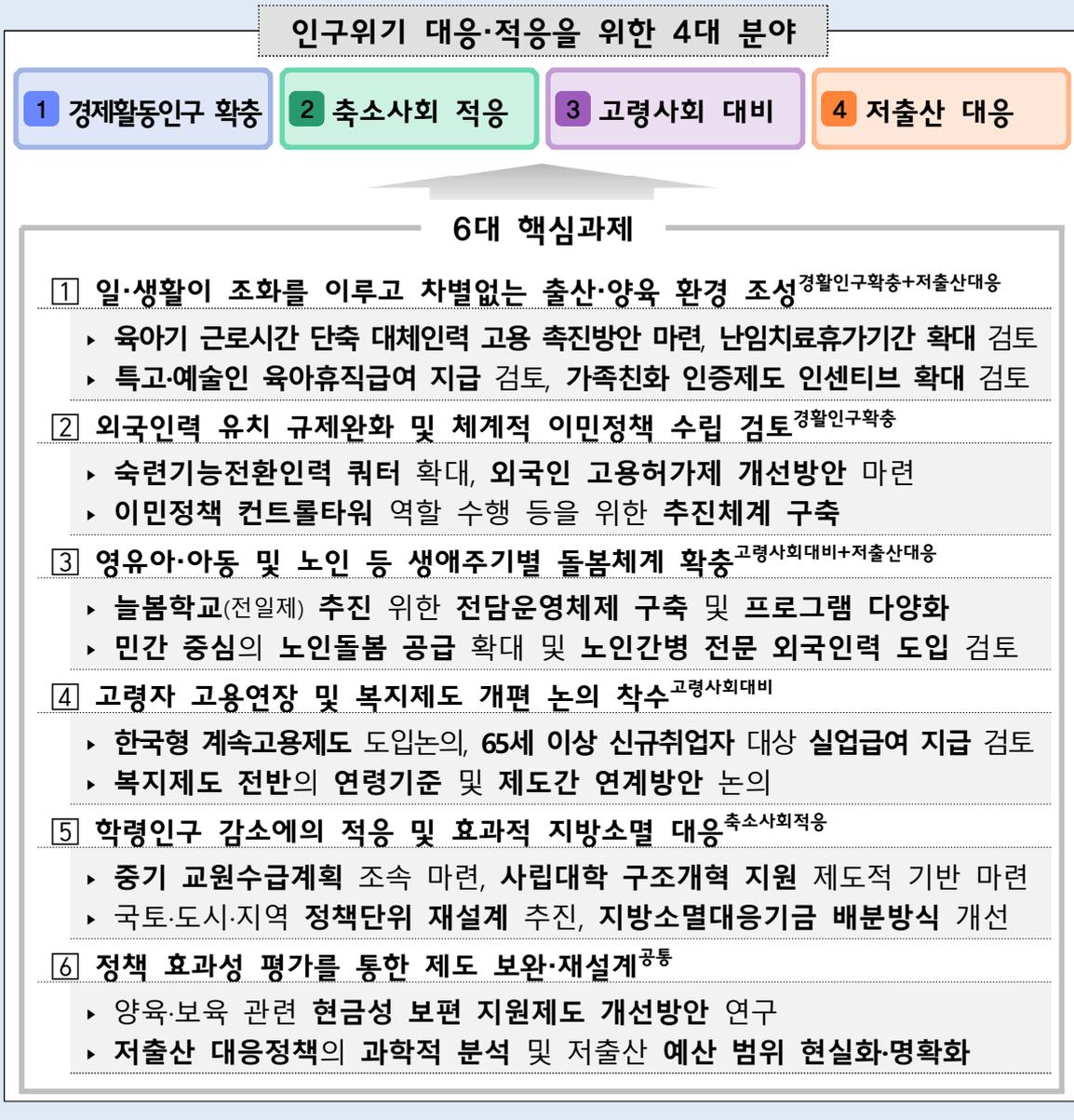
○ (구조변화 대응) 새정부 출범 이후,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4대 분야별 주요과제 발표 ('22.6월)

*인구리스크 심화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인구정책TF를 인구위기대응TF로 개편('22.6월), 구체적 정책과제 발굴 논의

* 4대 분야별 주요과제

- ① **경제활동인구 확충**: 여성·고령층·외국인 등 경제활동 참여제고, 인적자본 생산성 제고
- ② **축소사회 적응**: 학령·병역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 대응, 축소사회 유망 산업 육성
- ③ **고령사회 대비**: 복지시스템 안정성(지속가능성) 제고, 고령층 의료·돌봄·요양서비스 확충
- ④ **저출산 대응**: 5대 저출산 요인 개선, 청년층 맞춤 지원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적응을 위한 4대 분야별 과제와 함께 6대 핵심과제를 선정·집중추진 하여 정책 효과성 제고



□ 기술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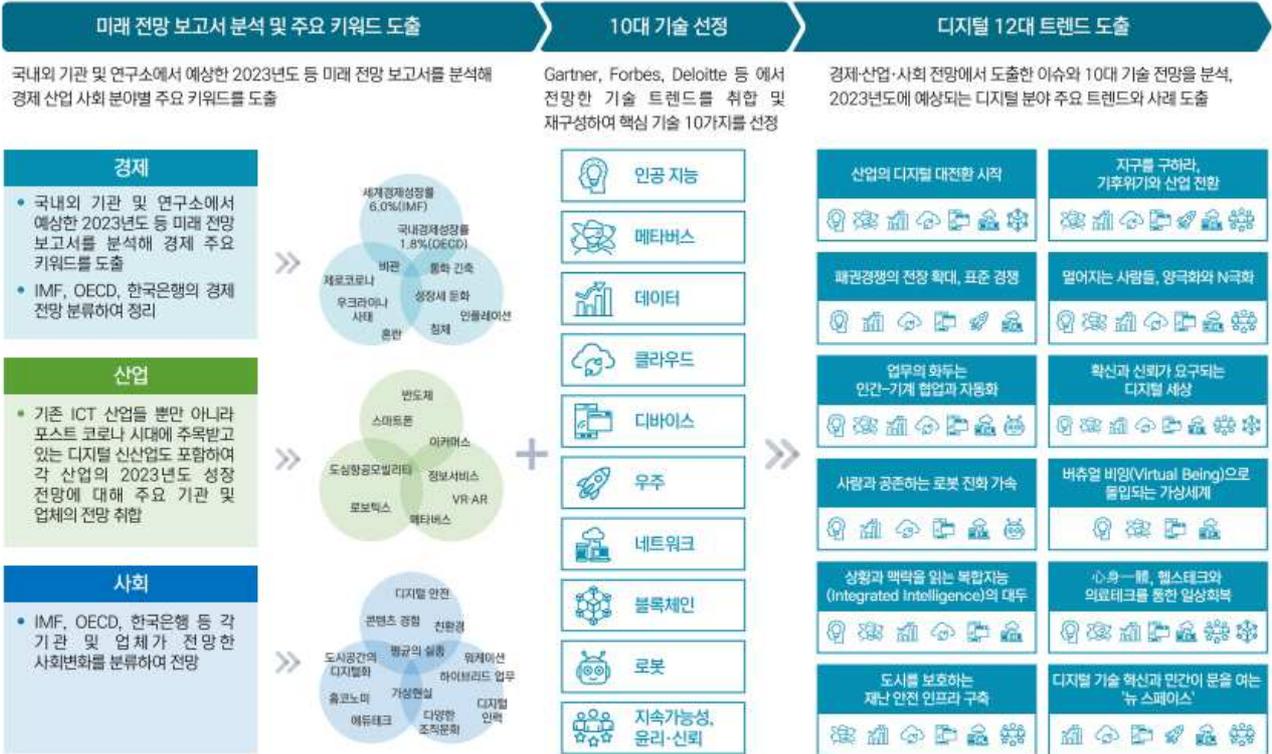


그림 28 <2023년 12대 디지털 트렌드>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NIA)

○ **(복합지능)** 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로 인간처럼 사고, 행동하는 복합지능의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 융합이 촉진됨(출처 : NIA 2023 12대 디지털 트렌드)

- 농업 : 생산성, 효율성 향상 의견을 듣는 AI 팜
- 교육 : 복합인지 기반 문제풀이 기술 기반 사용자 맞춤형 개념학습 제공
- 의료 : 의료지능과 협력 진료를 통한 임상 의사결정
- 연관기술로 인공지능, 메타버스, 데이터, 클라우드, 디바이스, 네트워크 등 다양

II. 주요 평가 결과

II. 주요 평가 결과

□ 기관경영전략

■ 비전과 경영전략 수립·시행

- 기관은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미션과 비전을 설정하고 3대 경영목표와 3대 전략방향 및 9대 전략과제를 설정하는 노력이 있으며 전략체계의 연계성이 대체로 양호하고 체계적이어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핵심가치와 경영전략에 대한 구성원의 내재화 정도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바 전 직원이 전략체계를 공유하여 전략경영을 도모할 것을 권고하며, ESG 경영체계 도입이나 ESG 경영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 등의 노력과 실적이 다소 부족함
- 기관 내 이해관계자와 공유 할 수 있는 장치로서 이사회, 연구자문위원회, 노사협의회, 연구심의회 등을 운영하고 있고 도정현안 외부모니터링 체계로서 간부회의, 소통회의, 도의회 보고 등이 있으며 지역사회 정책 의제 발굴 및 소통채널로서 시군간담회, 도민공모, 설문조사 등이 있고 정책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이해관계자 공유 채널 운영하여 의견 수렴과 정보공유를 도모하고 있어 대체로 양호하나 일반적인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며 기관의 미션과 비전, 전략 목표 등을 이해관계자와 전달하고 공유하는 노력과 실적으로 다소 충분치 않은 것으로 평가됨

■ 연간 경영계획의 적정성

- 기관은 외부 용역을 통해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당해연도에 보완하였는바 세부사업별 추진 로드맵을 통한 연간 경영계획을 구체화하여 세부사업별 미래전략 매칭 및 당면 핵심사업 우선순위 결정, 기존 과제의 성과 점검 및 분야별 핵심주제 선정, 미래전략 연구과제 MAPPING 등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행계획서는 연구기간, 필요성 및 목적, 내용, 방법, 기대효과 등으로 작성되어 계획서에 따라 연구 사업이 수행되고 연구결과에 대한 검증 및 평가가 이루어지는바 연구사업 수행방식이 대체로 양호하며 사업별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환류 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 바람직함

■ 기관장 경영혁신 추진과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및 성과

- 기관은 내부 혁신TF 운영과 외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제안된 다양한 경영혁신 과제를 기관의 혁신방안으로 체계화하여 자체 진단 결과 소통부재와 조직일체감 약화를 문제로 인식하고 전북연구원 혁신방안 6대 영역 28개 실행과제를 선정하여 자체 혁신방안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는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됨
- 기관의 경영성과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그룹 운영을 체계화하여 사회조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내부 BSC평가체계를 개선하였으며, 도민행복 정책모니터링단과 전북경제포럼을 확장하고 삼락농정포럼을 확산시켜 농정거버넌스체계 구축 및 지역농정 참여의 장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음

■ 기관의 지역사회 연계 및 불공정한 관행·제도 개선 및 의사소통 노력

- 기관은 내·외부 이해관계자들과의 의사소통과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바 사회조사자문위원회와 연구자문위원회 운영 노력이 있고 14개 시군과 시군정책협력단을 운영하여 시군 간담회를 신설 운영하는 등의 지역사회 연계노력이 있으며, 지역사회 고객만

족 소통채널로서 시군간담회, 설문조사, 도민행복정책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바 고객만족경영 추진로드맵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실천방안과 피드백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추진하는 노력이 요망되고, 퇴직급여제도 변경, 불공정 보수규정 및 퇴직자 성과급 관행 정비 등의 노력이 있음

□ 정책준수

■ 도 정책 반영

- 홍보 및 소통이 실효적인 수준에서 강화되었으며, 특히 소통을 위한 창의적인 수단과 채널을 도입·운영한 점이 인상적임
- 홍보 및 소통 관련 실적이 상당하며, 전년대비 양적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강화된 내용이 인정됨

■ 사회적 책임 이행

- 신규로 도입된 3개의 평가기준(창업기업 생산품, 중소기업 생산품, 기술개발제품 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하여 총 8개의 구매실적 모두 기준치 달성이 확인되며, 청년채용실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준수 또한 기준치를 충족하고 있음
- 다만, 장애인 고용 준수가 기준치에 다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임금피크제 운영의 적정성

- 2022년 임금피크제 2년차 대상이 없음으로 인해 해당사항이 없으나, 관련 내부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신규채용 제도 운영이 추진되고 있음

■ 우수정책 추진 노력 및 성과

-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지원 노력이 상당하였으며,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의 협력적 활동 등이 확인됨에 따라 우수정책 추진 노력과 성과 모두 우수함

■ 인권경영 추진 시스템 구축 및 평가

- 인권경영 추진 시스템과 관련하여 영향평가를 통한 환류체계가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조치까지 추진한 활동이 인정됨에 따라 인권경영이 단순히 형식의 수준이 아닌 실질적인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음이 인정됨

■ 규제개혁과제 발굴 실적

- 실적으로 제시된 2건 모두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규제개혁으로 평가될 수 있음
- 다만, 양적 측면에서 최소 기준인 2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연구원이라는 기관의 특성상 타 기관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실적을 보여줌으로써 기관의 역할 존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 대응기관 노력도

-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추진한 내용이 다수 확인되나, 일부 영역에서의 활동에 대한 효과가 제한적이고 전년대비 강화되었다고 보기가 곤란함

■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 노력 및 성과

-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가 상당한 수준에서 마련되어 있음이 확인되나, 연구원 본연의 업무에 사회적 가치를 추가로 반영하는 설득적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함

■ 재난·안전관리

- 재난·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 조사 및 활동의 적정성이 확인되고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음

■ 도덕적 해이 및 관리소홀로 인한 문제 발생 여부

- 예방적 노력이 상당하였고, 관련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음

■ 지역사회 공헌

- 본 지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4개의 평가내용 분야에 매우 우수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분야가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분야가 존재함에 따라, 분야별 균형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경영효율화

■ 재무·예산 건전성

- 당해연도에는 기관의 운영경비가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사업수입액의 감소율이 더 커서 일반관리비 충당률 및 재정자립도가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행정운영경비를 크게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자체수입증대를 통해 최소한 전년도 수준의 일반관리비 충당률 및 재정자립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조직에서는 중장기 재무계획을 수립하여 수입항목과 비용항목을 추계하고 있음. 수입과 비용의 균형을 이루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항목은 인건비 항목으로 2023년 기준으로 계상하면 조직변화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퇴직급여 법정기준의 변화에 따른 퇴직급여 총당금 증가 등을 고려하면 7억원 이상의 부족분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기관의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 충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전라북도의 출연금 증액이 필요한 상황임
- 기관은 연구수탁과제 증가 등을 통해 자구노력을 실시하고 있으나 박사급 연구원 1인당 연구과제의 수가 6.3건으로 전국 출연연구원의 평균 수탁과제 4.8건의 134%에 달해 추가적인 자구노력은 어느 정도 한계에 달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인건비의 문제, 여성정책연구소의 이전문제 등으로 재무계획을 수립하기가 쉽지 않은 점은 이해되지만 중장기 재무계획을 수립한지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재무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있는 것은 기관의 역량에 비해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물품, 공사 등의 위탁계약시 수의계약 낙찰률을 적용하고, 수탁·협약사업 재위탁시 전라북도 회계과 수의계약 낙찰률 적용기준에 근거하여 마련된 자체 수의계약 낙찰률을 적용함으로써 예산절감을 하는 등 시스템에 의한 예산절감을 시행하고 있는 점은 우수한 사례임
- 또한 회계시스템과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현행화하여 투명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잘못된 계획의 수정 및 세금계산서처리 등으로 인한 행정인력낭비를 최소화하고 있음

■ 윤리경영

- 필수 공시사항 이외에도 월별 수의계약내역,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사발주내역 등 다른 내용도 잘 공시되고 있음
- 행정직원을 위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예산수립 및 기관 내외의 교육방법, 시기 등을 조정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제도운영 및 성과관리

- 기관에서는 여비지급규정, 직제규정, 인사규정, 초빙연구위원 및 위촉연구원·행정원임용규정, 보수규정, 노사협의회운영규칙, 직원평가규칙, 직원채용규칙, 인사사무처리규칙, 연구사업수행규칙 등 규정개정 7회, 규칙개정 10회, 지침개정 3회 등의 규정 및 지침 정비를 실시함
- 일부 내용은 정부지침이나 전라북도의 기준변경에 의한 규정변경이지만 초빙연구위원 및 위촉연구원·행정원임용규정, 직원평가규칙, 직원채용규칙 등의 내용은 기관의 상황이나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변경인데 비정규직 직원이나 연구원에 대한 처우를 동일업무 동일임금원칙을 적용하여 개선하는 부분은 매우 바람직한 변화로 여겨짐
- 홈페이지의 모든 단계에서 주요 경영공시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스크롤 배너를 추가하였으며, 경영공시 정보 접근 경로를 2단계로 간소화하고 카테고리를 정비하여 검색의 편의를 개선하고 있음. 홈페이지의 조회수는 전년도의 조회수에 비해 88%증가하였으며, 다운로드 수는 전년대비 26% 증가하고 있음
- 홈페이지 이외에도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 전북학연구센터 홈페이지 및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민 등 일반인의 참여를 위해서는 이슈브리핑이나 정책브리프 등 내용에 대한 도민의 의견 등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 쌍방향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음
- 연구직의 실적평가를 강화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규정을 합리화하여 거의 모든 직원이 성과급의 대상이 되게 함으로써 신입직원 등도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함
- 성과평가의 개선과정에서 평가요소와 조직원의 성과와의 연관성을 높이고, 조직원의 평가지표 변화에 대한 수용성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블라인드 채용제도 도입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2017년 9월부터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음
- 응시원서에는 행정안전부 표준 응시원서에 입각하여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필수사항만 기재하도록 하고, 면접심사위원회에 대한 블라인드 채용 사전교육을 실시하며 심사위원회에 확인서를 징구함

■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 조직은 “전북연구원 혁신방안”이라는 자체연구를 통해 기존 연구부서의 연구영역 조정 및 확대를 위해 조직을 1본부 1실 5부 1센터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그 내용은 경영기획실을 신설하고 산하에 기획소통부, 경영관리부를 둬으로써 연구기획 및

- 관리업무를 관장하며, 연구본부 산하에는 혁신경제연구부, 공간환경연구부, 상생행복연구부를 두어 연구업무에 집중하게 하는 것임. 또한 새만금연구센터, 전북경제동향센터, 전북학연구센터, 대도약정책지원단 등 특별연구조직은 연구본부산하에서 기획경영실 산하로 이동함
- 이러한 개편안은 연구와 기획 및 관리의 분리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만 2023년 5월 현재에도 기존의 조직이 거의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음
 - 인력구조를 보면 상근직은 연구직, 관리직, 정보직, 전문직, 공무원 등으로 나뉘는데 연구직은 정원 31명 대비 현원 29명으로 2명의 결원이 있으며, 관리직은 정원 7명에 현원 7명, 정보직은 정원 1명에 현원 1명, 전문직은 정원 27명에 현원 25명으로 2명이 부족하여 전체적으로 73명 정원에 현원은 67명임
 - 공동연구의 비율이 70%에 달하고 협업연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최종보고서 제출시 연구세부분담표를 첨부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한 결과이지만 연구원간의 협업을 넘어 연구원과 행정담당자 등 전체 구성원의 공동작업을 통한 업무효율화, 외부사업발굴, 효율적 대내외 의사소통방법의 발굴 등을 추가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고객만족도 및 이행도

- 기관은 VOC채널인 지역사회모니터링단을 도민행복정책모니터링단으로 확대 개편하였고 도정현안 소통 체계를 정례화하고 소통채널 운영을 통한 지역소통 확대 노력이 있어 바람직하나 고객만족경영 추진로드맵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고객불만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피드백 프로세스를 정형화하는 노력이 권고되며 외부 고객만족도가 전년 대비 상당히 하락하였는바 고객만족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특성지표

■ 연구과제 성과

- 전북연구원은 2021년 공통지표에서 비전 및 전략, 사회적 책임(장애인 고용), 사회적 가치(실현성과), 조직운영(인적자원), 만족도(직원) 등 미흡기관으로 지적받은 이후, 2022년에 도민의 기대와 눈높이에서 부족함과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원의 비전과 전략 확립에 최선을 다함
- 연구계획-실행-검토의 'Action plan' 체계를 수립하여 연구 성과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음
- 비전체계 및 성과분석, 문제인식, 소통을 통한 전문성과 현장성을 결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 전북연구원은 연구과제 성과를 위한 기관의 계획 타당성, 수행 노력 및 환류 활동이 우수함

■ 연구지원

- 연구지원 제도 혹은 연구계획 수립이 적정하고,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연구지원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하고 있으며, 연구과제 진행 절차에 상응하는 체계적인 연구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연구지원 활동이 연구과제 형태별로 균형되게 지원되고 있음

- 연구사업 성과환류 시스템이 구축되어 계획수립, 조직지원, 지원협력, 성과보고, 환류 활동으로 활동 내용이 적정하며, 자체평가 및 외부평가와 연계한 환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전북연구원은 연구지원 성과를 위한 기관의 계획 타당성, 수행 노력 및 성과 환류 활동의 적정성이 적절한 수준임

■ 연구성과 확산 및 활용

- 체계적인 연구성과 확산계획 마련 및 도민 소통강화 노력 등 비전과 경영환경,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전년도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 및 대내외 경영환경분석을 통해 한국형 뉴딜 및 도정운영 연계한 사업목표 및 추진계획 수립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정책수요자 및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장단점 분석을 통한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사업계획 수립과정 상에서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한 적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함
- 수요자 중심 정보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개선, 접근 채널 다양화(체계화)를 통한 잠재적 외부고객 지원 등 주요 업무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내용이 적정하고, 주요 업무별 추진 중 발생한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과,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모니터링과 점검을 통한 연구성과 및 지원체계 지역사회 환류 체계 확립 등의 노력을 경주함
- 다만, 홈페이지 관리 및 보고서 편집 등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연구성과를 확산할 필요가 있음
- 전북연구원은 연구 결과 확산을 위한 계획의 타당성, 수행노력 및 환류의 적정성이 적절한 수준임

■ 시군정책(자율지표)

- 비전과 경영환경,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시군지자체 정책컨설팅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의 현황과 상황을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 노력이 있음
- 찾아가는 방문 컨설팅 행사를 위한 단계별 추진으로 주요업무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내용의 적정성, 주요 업무별 추진 중 발생한 경영환경 변화, 문제점 등에 대한 대응 노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 및 과정상의 효율성 확보 노력 및 모니터링 및 점검회의를 통한 사업수행 노력이 있음
- 시군지자체 정책컨설팅을 위한 주요 업무별 성과환류 시스템 구축되어 있으며, 자체평가 및 외부평가와 연계한 환류 활동,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 적정성 확보 노력이 있음
- 전북연구원은 시군지자체 컨설팅을 위한 계획, 수행노력 및 환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 노력과 정책지원 역할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우수함

III. 주요 개선사항

평가부분	내용
공통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p>■ 비전과 경영전략 수립·시행</p> <p>- 전 직원이 전략체계를 공유하여 전략경영을 도모할 것을 권고하며, ESG 경영체계 도입이나 ESG 경영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 등의 노력과 실적이 다소 부족함</p> <p>■ 지역사회 공헌</p> <p>- 본 지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4개의 평가내용 분야에 매우 우수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분야가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분야가 존재함에 따라, 분야별 균형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p> <p>■ 윤리경영</p> <p>- 행정직원을 위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예산수립 및 기관 내외의 교육방법, 시기 등을 조정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p>
사업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p>■ 연구과제 성과를 위한 계획의 타당성</p> <p>- 연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해 전라북도 및 연구원의 장기발전 방향에 관한 자문을 얻고 있으나 외부 전문가들의 구성에서 전공분야, 경력, 소속기관, 성별 등의 안배를 통해 당면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p> <p>■ 연구결과 홍보 및 확산을 위한 노력</p> <p>- 홈페이지 관리 및 보고서 편집 등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연구성과를 확산할 필요가 있음</p>

